

5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



발표일: 2020년 5월 1일



해양기상정보

- 해상특성(최근 5년간('15~'19년) 5월)
 - 상·중순: 동해중부와 제주도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 약간 높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 파고 낮았음
 - 하 순: 전 해상에서 파고 낮았음
 - ※ 유의파고 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 풍랑특보일 수(최근 5년간('15~'19년) 5월)
 - 4.0일(상순 1.9일 / 중순 1.4일 / 하순 0.7일)로 전월(6.0일)보다 2.0일 적음
- 해수면온도('20년)
 - 4월 실황: 서해(7.2~ 11.8℃) / 남해(13.3~15.7℃) / 동해(11.6~15.9℃)
 - 5월 예측: 서해(11.0~19.0℃) / 남해(14.0~21.0℃) / 동해(14.0~21.0℃)
- 조석정보(고극조위, '20년 5월)
 - 인천: 9일(938cm) / 완도: 8일(400cm) / 포항: 10, 24, 26일(40cm)

해양안전정보

- 해양선박 사고(최근 5년간('15~'19년))
 - 전체 15,993척 중 1,362척(8.5%)으로 연평균 272.4척의 사고가 발생
 - ☞ 5월은 봄철 해상의 안개로 인한 충돌, 접촉, 좌초·좌추 등의 사고가 잦고 해양레저 및 낚시 활동의 증가로 레저 선박과 낚시어선의 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기상특보 및 항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어업정보

- 5월 어황 전망
 - 아귀류, 갈치, 참돔, 삼치, 전어, 전갱이, 눈볼대, 용가자미는 평년 수준으로 전망됨
 - 대형선망어업과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은 휴어기, 권형망어업은 금어기에 들어 가겠음

자료협조: 해양경찰청, 국립수산물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20년 6월 연근해 선박 기상정보」는 2020년 6월 1일에 발표됩니다.

해양기상정보

최근 5년간('15~'19년) 및 지난해('19년) 5월 유의파고(평균, 최고)



< 최근 5년간('14~'19년) 및 지난해('19년) 5월 순별 유의파고(평균, 최고) >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서해남부	칠발도	신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맹골수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남해동부	거제도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동해중부	울릉도, 동해, 독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동해남부	포항	죽변, 구룡포, 후포
제주도	마라도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참고] 통계 지점: 기상부이 및 파고부이 지점(최근 5년)

○ 최근 5년간('15~'19년) 5월 해역별 평균 유의파고

전 해상	0.5m(상순 0.6m / 중순 0.6m / 하순 0.4m)로 전월(0.7m)보다 낮음	
	앞바다	먼바다
서 해	0.3m (전월과 비슷)	0.5m (전월보다 0.1m 낮음)
남 해	0.4m (전월보다 0.1m 낮음)	0.7m (전월보다 0.3m 낮음)
동 해	0.6m (전월보다 0.2m 낮음)	0.9m (전월보다 0.2m 낮음)
제주도	0.6m (전월보다 0.1m 낮음)	0.9m (전월보다 0.2m 낮음)

<순별 평균 유의파고>

- 5월 상순과 중순에 동해중부와 제주도 먼바다 해상에서 파고 약간 높았으며 그 밖의 해상에서는 파고 낮았음
- 5월 하순에 전 해상에서 파고 낮았음

	앞바다			먼바다		
	상순	중순	하순	상순	중순	하순
서 해	0.4	0.3	0.3	0.6	0.5	0.5
남 해	0.5	0.5	0.3	0.9	0.8	0.6
동 해	0.6	0.6	0.5	1.0	0.9	0.7
제주도	0.7	0.6	0.5	1.0	1.0	0.8

※ 파고기준: 낮음 1.0m 미만, 약간 높음 1.0~2.0m, 높음 2.0~3.0m, 매우 높음 3.0m 이상

○ 최근 5년간('15~'19년) 5월 해역별 최고 유의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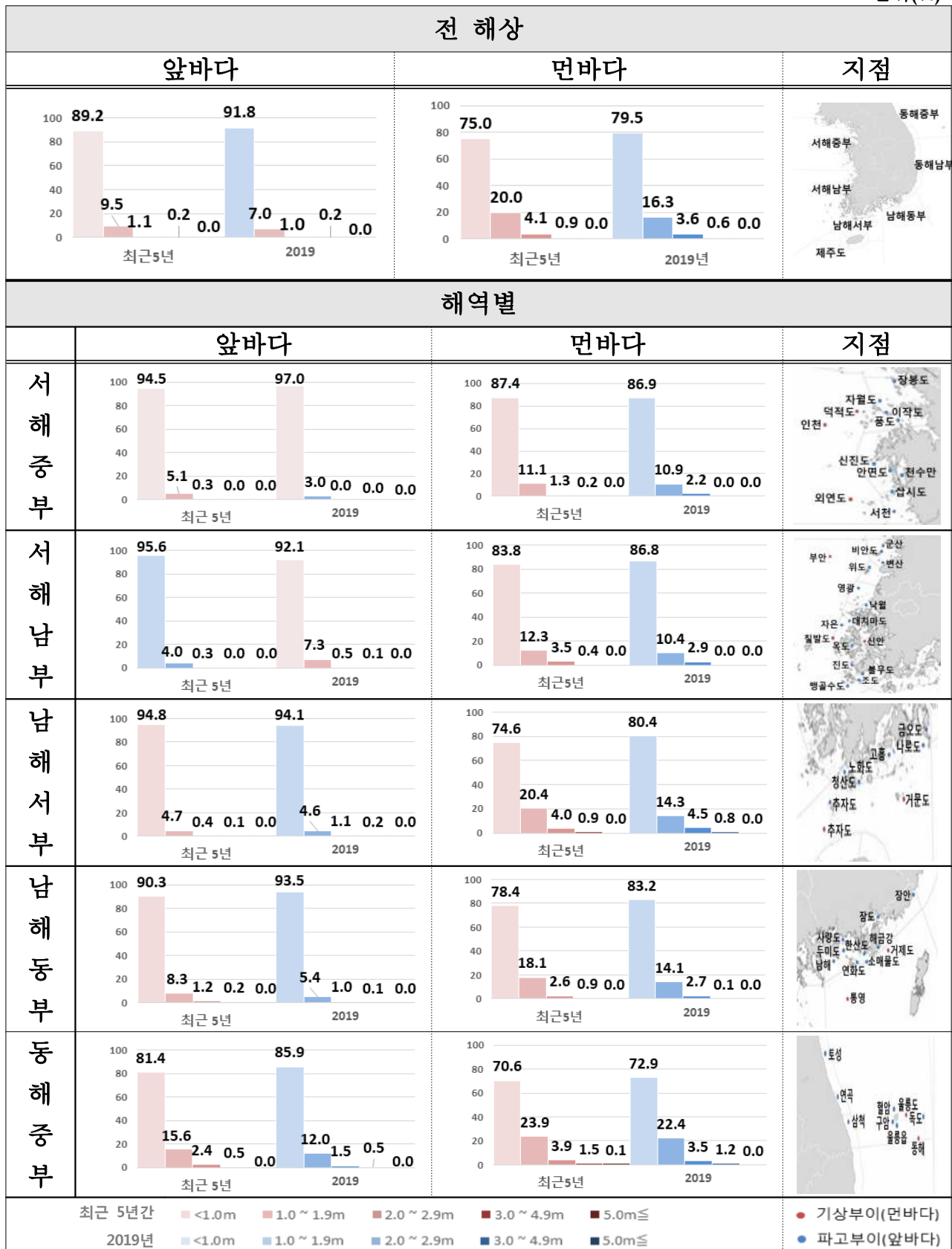
- 서 해: 앞바다 1.4m / 먼바다 1.6m
- 남 해: 앞바다 1.6m / 먼바다 2.0m
- 동 해: 앞바다 1.9m / 먼바다 2.3m
- 제주도: 앞바다 2.0m / 먼바다 2.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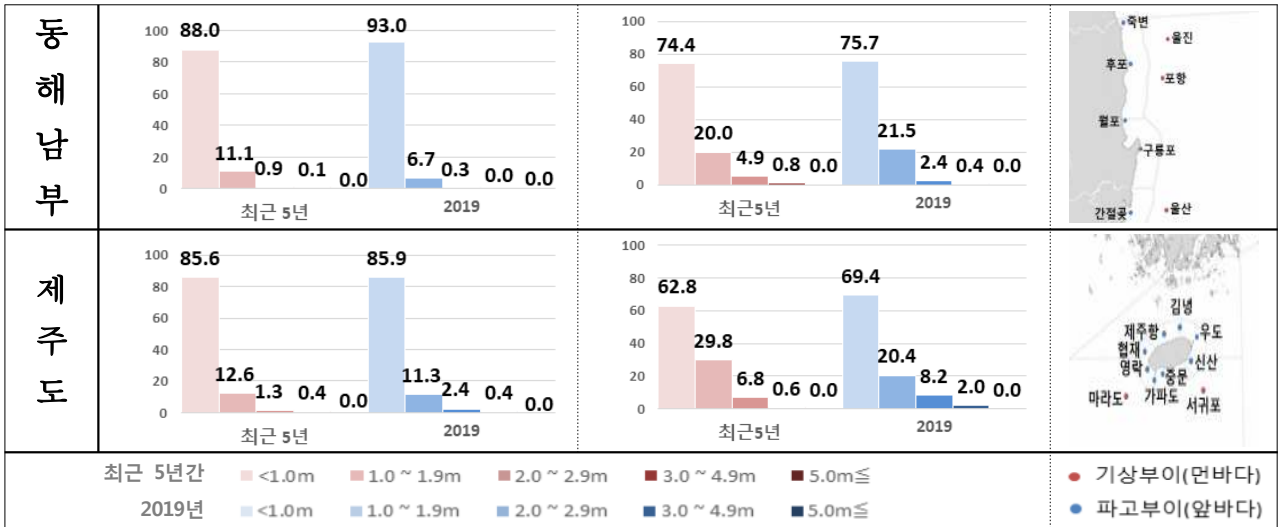
○ 관측 이래 5월 지점별 기상부이 유의파고(일 평균, 일 최고) 극값 순위

해역	1위			2위			3위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지점	날짜	일 평균 (일 최고)
서 해	칠발도	'15.5.13	2.7 (3.2)	인천	'16.5.3	2.7 (4.6)	외연도	'16.5.3.	2.5 (3.6)
남 해	거문도	'16.5.3.	3.2 (4.3)	추자도	'18.5.20.	3.1 (3.6)	통영	'16.5.3.	3.1 (5.1)
동 해	울릉도	'16.5.4.	3.9 (5.7)	포항	'10.5.26.	3.6 (4.6)	포항	'10.5.27.	3.5 (4.2)
제주도	서귀포	'18.5.20.	4.1 (4.9)	서귀포	'18.5.8.	3.4 (4.9)	서귀포	'16.5.3.	3.3 (4.5)

■ 최근 5년간('15~'19년) 및 지난해('19년) 5월 유의파고 분포

단위(%)





○ 최근 5년간('15~'19년) 및 지난해('19년) 5월 전해상 유의파고 분포

- 최근 5년 (앞바다) 1m미만 89.2%, 2m이상 1.3%
(먼바다) 1m미만 79.5%, 2m이상 5.0%
- 지난해 (앞바다) 1m미만 91.8%, 2m이상 1.1%
(먼바다) 1m미만 79.5%, 2m이상 4.2%

○ 최근 5년간('15~'19년) 5월 해역별 유의파고 분포

- 서해 (앞바다) 1m미만 94.6%, 2m이상 0.4% (먼바다) 1m미만 86.3%, 2m이상 2.3%
- 남해 (앞바다) 1m미만 92.1%, 2m이상 1.0% (먼바다) 1m미만 75.8%, 2m이상 4.5%
- 동해 (앞바다) 1m미만 83.3%, 2m이상 2.4% (먼바다) 1m미만 71.8%, 2m이상 5.6%
- 제주도 (앞바다) 1m미만 85.6%, 2m이상 1.8% (먼바다) 1m미만 62.8%, 2m이상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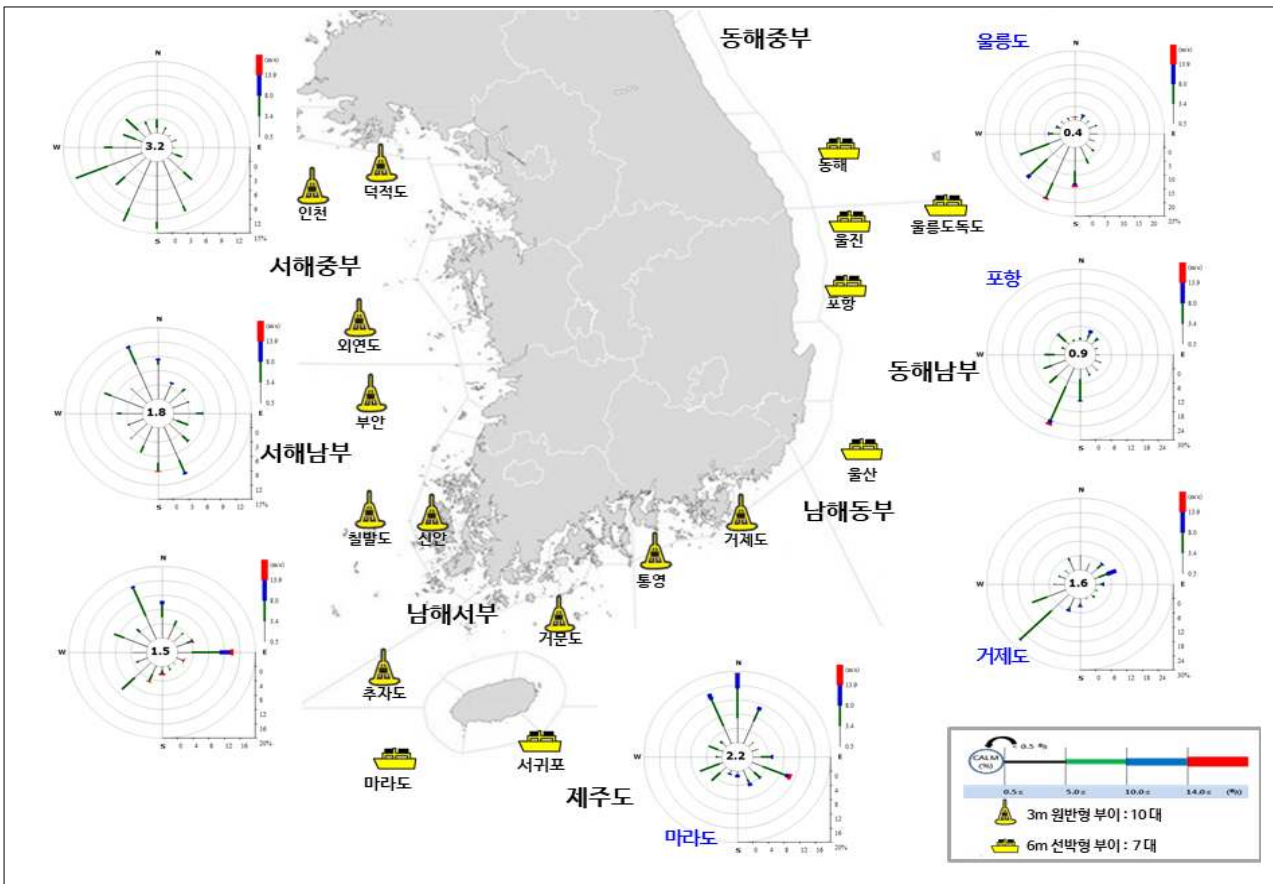
○ 최근 5년간('15~'19년) 5월 유의파고 분포 최다 해역

- 최근 5년 (1m미만) 서해남부앞바다(95.6%)
(2m이상) 제주도남쪽먼바다(7.4%)
- 지난해 (1m미만) 서해중부앞바다(97.0%)
(2m이상) 제주도남쪽먼바다(10.2%)

해역	먼바다	앞바다
서해중부	덕적도, 외연도, 인천*	신진도, 삼시도, 이작도, 풍도, 자월도, 서천, 천수만*, 안면도*, 장봉도*
서해남부	칠발도, 부안*	진도, 옥도, 영광, 군산, 신안, 맹골수도, 대치마도*, 비안도, 자은, 낙월*, 변산*, 조도*, 위도*, 불무도*
남해서부	거문도, 추자도	청산도, 금오도, 고흥, 노화도, 추자도, 나로도*
남해동부	거제도, 통영	두미도, 장안, 해금강, 한산도, 잠도, 소매물도*, 남해, 연화도*, 사랑도*
동해중부	동해, 울릉도	혈암, 구암, 연곡, 울릉읍, 토성, 삼척, 울릉서부
동해남부	포항, 울산*, 울진*	죽변, 구룡포, 후포, 간절곶*, 월포*
제주도	마라도, 서귀포*	제주항, 중문, 우도, 가파도, 협재, 김녕*, 신산*, 영락

[참고] 최근 5년 통계 지점, 지난해(19년) 통계자료는 *지점이 추가되었음

■ 지난해('19년) 5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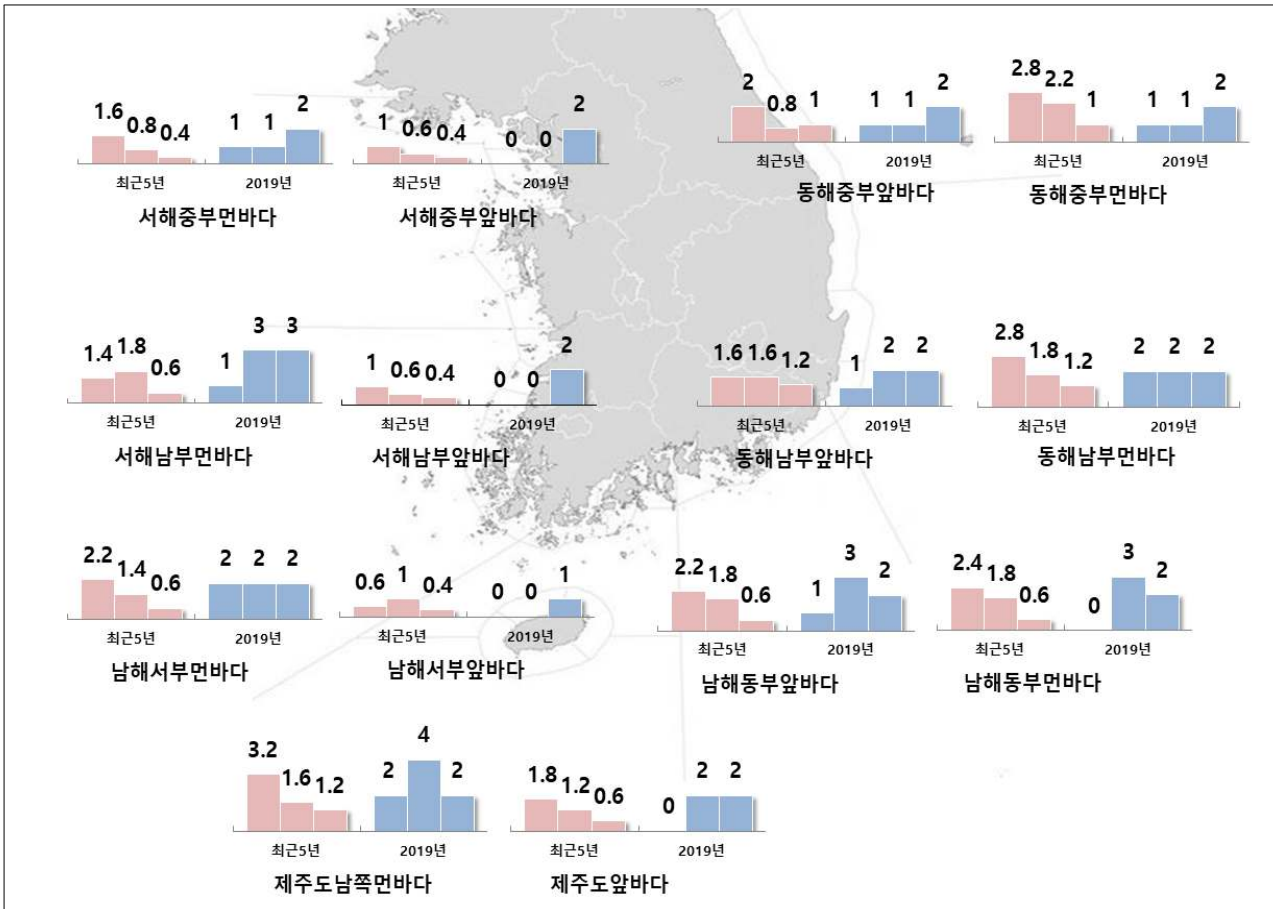
< '19년 5월 해양기상부이 해상풍 바람장미 >

○ 지난해('19년) 5월의 해역별 풍속 계급별 분포

해역	주풍계	풍속(m/s) 분포(%)					관측지점
		Calm	0.5~4.9	5.0~9.9	10.0~13.9	14.0≤	
서해중부	S~SW	2.1	66.9	29.1	2.7	0.0	덕적도, 외연도, 인천
서해남부	N, N	3.6	72.1	21.7	2.5	0.1	칠발도, 부안, 신안
남해서부	NW, E	1.7	58.4	34.2	4.7	1.1	추자도, 거문도
남해동부	SW	2.6	55.8	36.1	5.5	0.1	통영, 거제도
동해중부	SW	1.0	54.8	39.8	3.6	1.0	동해, 울릉도
동해남부	SW	1.4	49.2	44.0	4.7	1.0	울진, 포항, 울산
제주도	N	1.9	45.7	41.8	9.8	0.9	마라도, 서귀포
전 해상		2.0	57.5	35.2	4.8	0.7	

- 주풍계: 동해와 남해동부 해상에서 남서풍계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풍계열의 바람이 우세하였음
- 전 해상 풍속: 5.0m/s 미만 59.6% / 5.0 ~ 9.9m/s 35.2% / 10.0m/s 이상 5.5%
- 풍속 분포 최다 해역
 - 5.0m/s 미만: 서해중부(66.9%)
 - 10.0m/s 이상: 제주도남쪽(10.7%)

■ 최근 5년간('15~'19년) 및 지난해('19년) 5월 풍랑특보일 수



<최근 5년간('14~'19년) 및 '19년 5월 풍랑특보일 수(상순, 중순, 하순) >

○ 5월 풍랑특보 발표일 수

- 최근 5년: 4.0일, 전월(6일)보다 2일 적음
- 지난해: 4.6일, 전월(6.1일)보다 1.5일 적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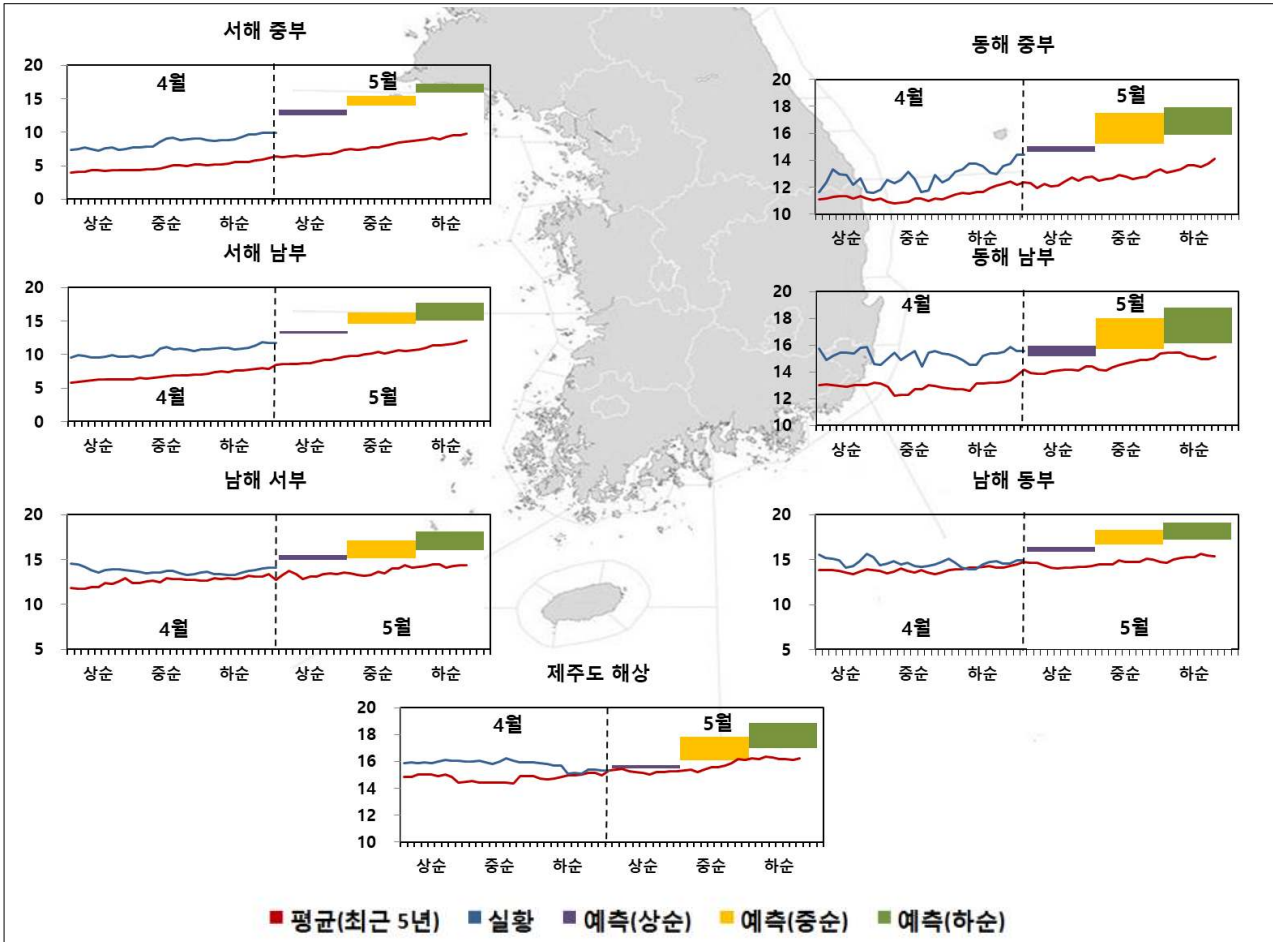
○ 5월 순별 풍랑특보 발표일 수 비교

- 최근 5년: 상순 1.9일 / 중순 1.4일 / 하순 0.7일
- 지난해: 상순 0.9일 / 중순 1.7일 / 하순 2일

○ 5월 풍랑특보일 수 최다 / 최소 해역

- 최근 5년: 동해중부, 제주도남쪽면바다(6.8일) / 서해중부·남부, 남해서부앞바다(2.8일)
- 지난해: 제주도남쪽면바다(8일) / 남해서부앞바다(1일)

■ 해수면온도 지난달(4월) 실황 및 5월 예측



< 해수면온도 4월 관측값 및 5월 예측 >

- ☞ 해수면온도는 해양기상부에서 관측한 수온을 사용하였으며 '평균(최근 5년)'은 최근 5년간('15~'19년) 5월 관측값의 평균, '실황'은 지난달('20년 4월)의 관측값임
 - 관측지점: 서해중부(덕적도, 외연도), 서해남부(칠발도)
 - 남해서부(거문도, 추자도), 남해동부(거제도), 제주도(마라도)
 - 동해중부(동해, 울릉도), 동해남부(포항)
- ☞ 해수면온도 예측정보는 기후예측시스템에서 산출된 예측값을 사용하며, 실제 관측값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난달 ('20년 4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특성

해역	4월 해수면온도(°C) (최근 5년 평균 편차)		
	상순	중순	하순
서해중부	7.2 ~ 7.8 (+1.1)	7.8 ~ 9.2 (+1.0)	8.8 ~ 10.0 (+0.2)
서해남부	9.6 ~ 9.9 (+1.0)	9.8 ~ 11.2 (+0.6)	10.8 ~ 11.8 (-0.1)
동해중부	11.6 ~ 13.3 (+0.1)	11.6 ~ 13.1 (-0.2)	13.0 ~ 14.4 (+0.1)
동해남부	14.5 ~ 15.9 (+1.2)	14.4 ~ 15.6 (+0.7)	14.5 ~ 15.9 (0.0)
남해서부	13.6 ~ 14.4 (+0.7)	13.3 ~ 13.8 (0.0)	13.3 ~ 14.1 (-0.7)
남해동부	14.1 ~ 15.7 (+0.5)	14.2 ~ 15.1 (0.0)	13.9 ~ 14.9 (-0.7)
제주도남쪽	15.9 ~ 16.1 (+0.7)	15.8 ~ 16.2 (+0.5)	15.1 ~ 15.8 (+-0.8)

○ 최근 5년간('15~'19년) 5월 해수면온도 평균 및 '19년 5월 해역별 해수면온도 예측

(과거) 최근 5년간 5월 해수면온도 평균		(예측) '19년 5월 해수면온도	
관측지점	범위(°C)	해역	범위(°C)
덕적도, 외연도	10.0 ~ 15.3	서해중부	11.0 ~ 18.0
칠발도	12.2 ~ 16.0	서해남부	12.0 ~ 19.0
울릉도, 동해	14.3 ~ 17.9	동해중부	14.0 ~ 20.0
포항	15.5 ~ 18.3	동해남부	14.0 ~ 21.0
거문도, 추자도	14.5 ~ 17.7	남해서부	14.0 ~ 20.0
거제도	15.3 ~ 18.5	남해동부	15.0 ~ 21.0
마라도	16.5 ~ 19.1	제주도남쪽	15.0 ~ 21.0

조석 정보

제공: 국립해양조사원

5월 조석예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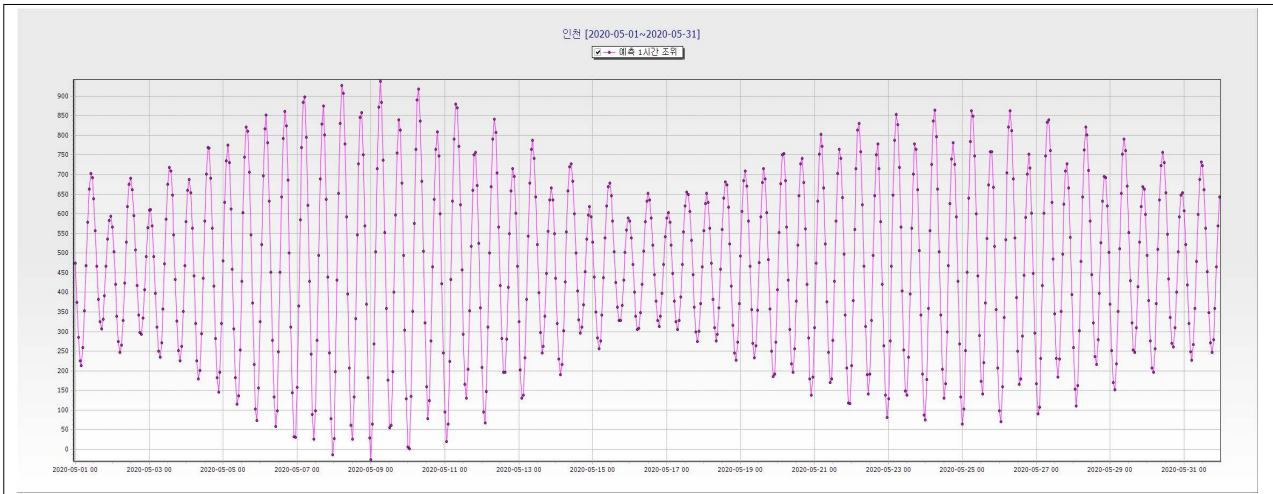
서해안의 인천은 5월 9일에 938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며, 남해안의 완도는 5월 8일에 400cm, 동해안의 포항은 5월 10, 24, 26일에 40cm의 고극조위가 나타나겠음

5월 지역별 고극조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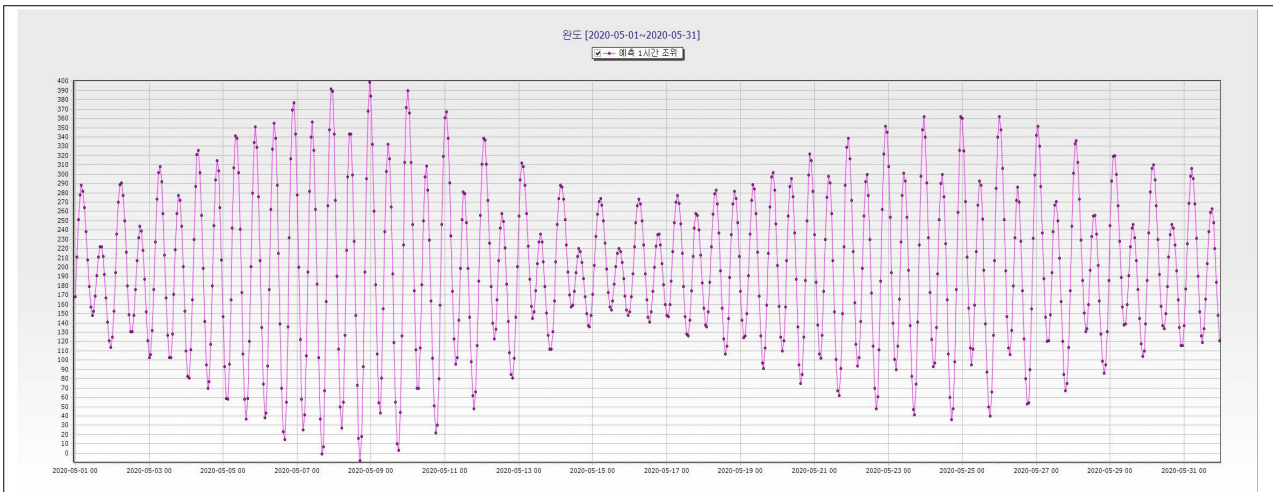
해역	지역	대조기(망 5.7)		대조기(삭 5.23)	
		발생시각	고극조위(cm)	발생시각	고극조위(cm)
서해안	인천	04:36	907	05:13	856
	안흥	03:33	681	04:18	642
	군산	02:50	703	03:36	663
	목포	01:52	472	02:39	445
남해안	제주	23:02	290	23:31	267
	완도	22:26	397	22:52	363
	마산	21:13	201	21:28	189
	부산	20:43	129	21:01	122
동해안	포항	15:13	33	15:10	39
	속초	14:39	29	14:56	34
	울릉도	14:08	28	14:12	35

☞ 2020년 조석표(한국연안)는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www.khoa.go.kr)와 ARS(1588~9822)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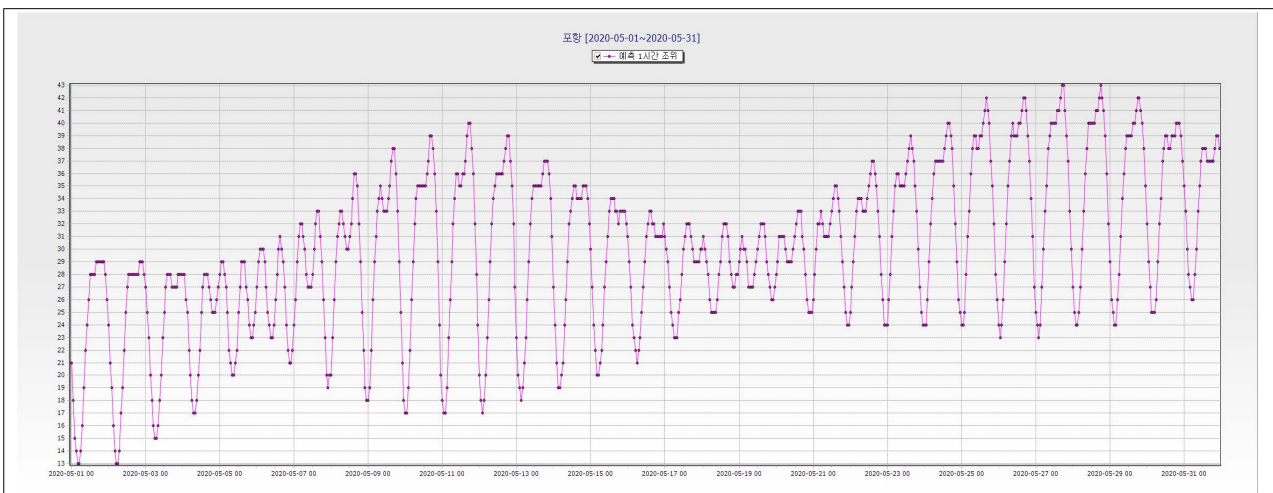
5월 지역별 조위 시계열



< '20년 5월 서해안 인천지역 조석예보 >



< '20년 5월 남해안 완도지역 조석예보 >



< '20년 5월 동해안 포항지역 조석예보 >

해양안전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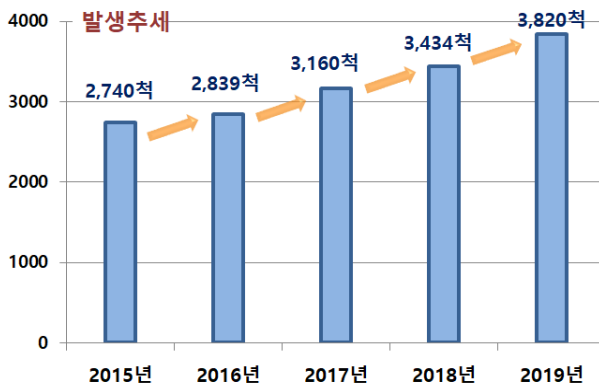
해난사고 현황

제공: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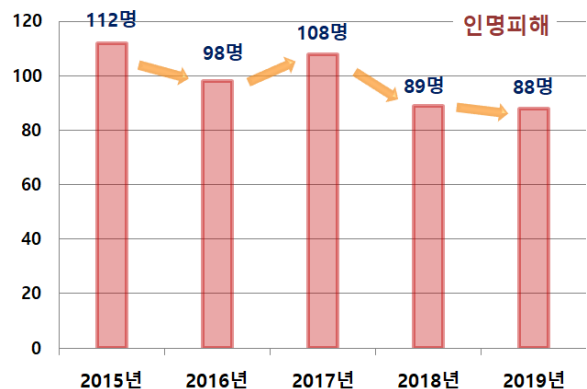
■ 최근 5년간('15~'19년) 해상조난사고 현황

최근 5년간 선박사고는 총 15,993척(96,286명)이 발생하였고, 선박 15,665척(97.9%) 및 승선원 95,791명(99.5%)이 구조되었으며 승선원 495명(0.5%)이 사망(322명)·실종(173명)되는 인명피해가 발생

구분	발생		구조		인명피해		
	척	명	척	명	계	사망	실종
계	15,993	96,286	15,665	95,791	495	322	173
2019년	3,820	20,422	3,758	20,334	88	58	30
2018년	3,434	19,588	3,385	19,499	89	56	33
2017년	3,160	17,296	3,108	17,188	108	83	25
2016년	2,839	20,145	2,775	20,047	98	48	50
2015년	2,740	18,835	2,639	18,723	112	77	35



< 사고발생 추세 >



< 인명피해 현황 >

☞ 5월 주요 해상조난사고는 부록2. 를 참고

■ 해상조난사고 현황

- (총괄) 최근 5년간 5월에 발생한 선박사고는 전체 15,993척 중 1,362척(8.5%)으로 연평균 약 272.4척의 사고가 발생
 - * 동 기간 사망·실종자는 21명 발생
 - (선종별) 어선 694척(51%), 레저선박 305척(22.4%), 낚시어선 130(9.5%), 예부선 57척(4.2%) 순
 - (유형별) 기관손상 등 단순사고를 제외하고, 충돌사고가 130척(9.5%)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침수 93척(6.8%), 좌초·좌주 70척(5.1%) 순

해양 안전정보

- 5월은 봄철 해상안개로 인한 충돌, 접촉, 좌초·좌주 등의 사고 건수가 많으며, 해양레저 및 낚시 활동 등의 증가로 레저선박 및 낚시어선의 사고가 많이 발생
- 해양 종사자들은 기상예보 및 항행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무리한 운항을 지양하고 항해장비 점검, 운항 규칙 준수 등 사고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
 -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이용, 사용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송신되는「海 Road 어플」 설치 권장
 - 기상청 ‘해양기상정보포털’ 가입을 통한 해양기상 정보 수신
 - * 해역별 기상실황 및 예·특보 등 해양기상정보를 SMS 및 MMS로 제공

해양사고 예방정보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 최근 5년간('15~'19년) 5월 해양사고 현황

○ 최근 5년간 5월 해양사고: 평균 219건 발생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170	128	163	187	219	220	215	238	276	275	222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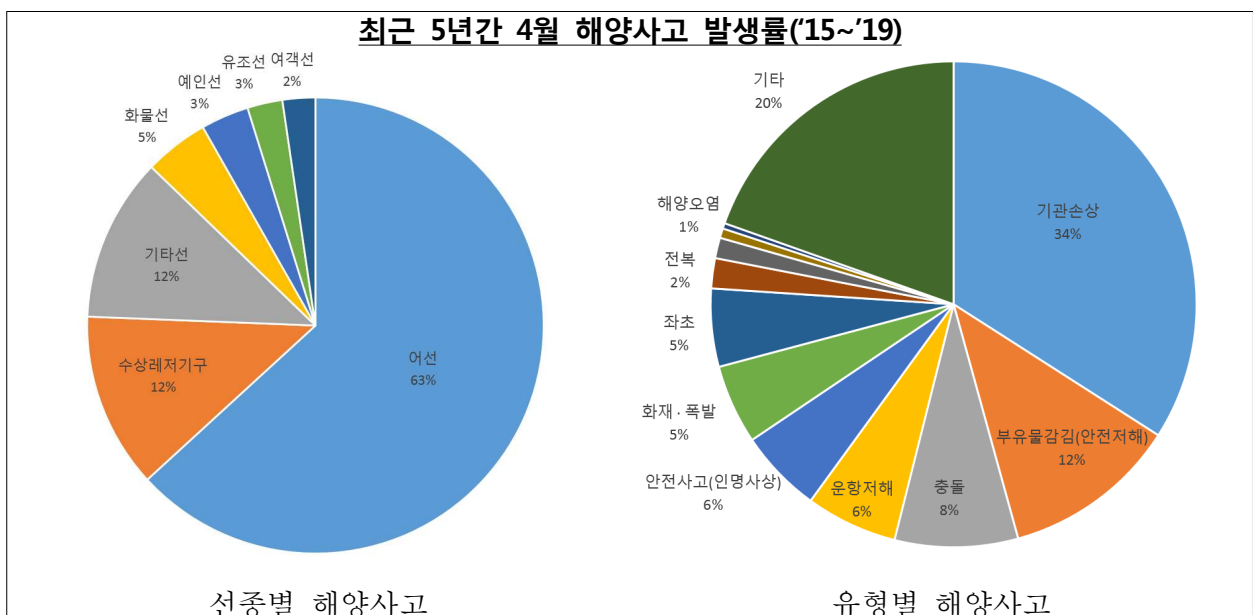
○ (선종별) 어선 762척, 기타선·수상레저기구 290척, 화물선 55척, 예인선 41척, 유조선 30척, 여객선 28척 등의 순(총 1,206척)

○ (사고유형별) 기관손상 373건, 안전운항저해 195건, 충돌 90건, 안전사고 61건, 화재폭발 58건, 좌초 57건, 전복 22건, 해양오염 15건, 접촉 7건 등의 순

■ 5월은 안개 등으로 해상의 시정이 제한되어 충돌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며, 화재·폭발사고도 빈번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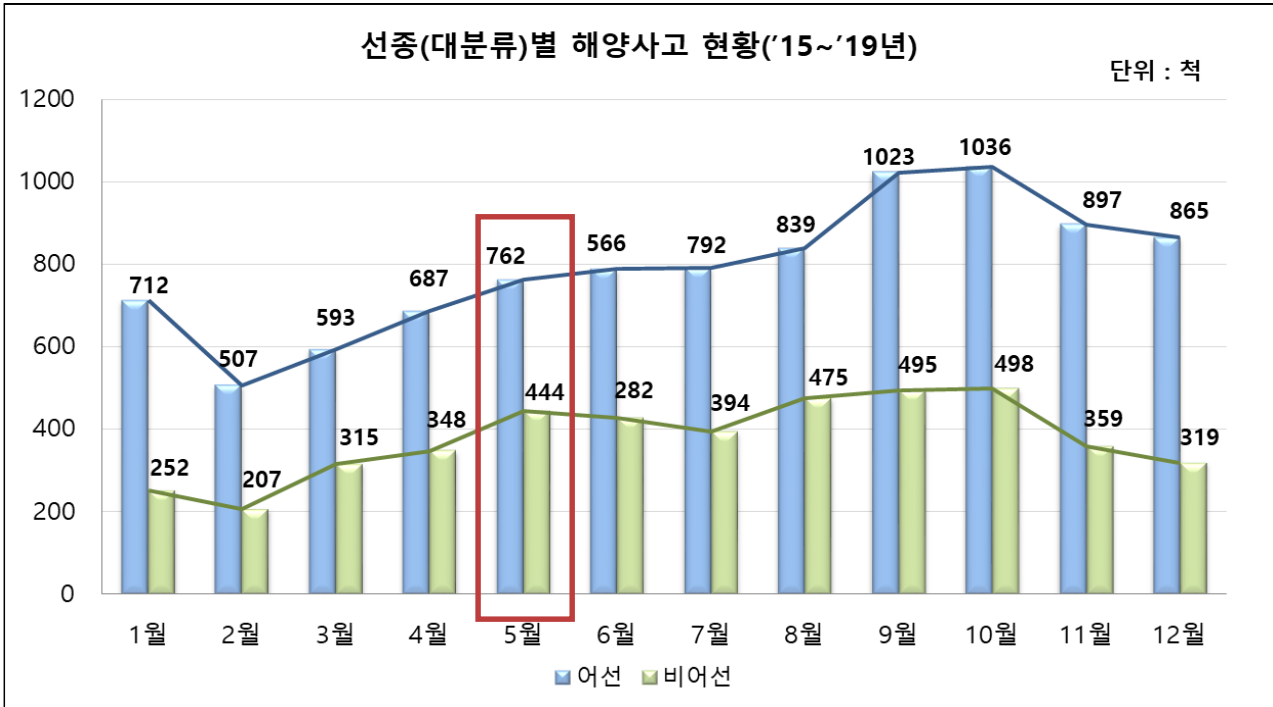
○ (사고현황) 지난 2년간 5월 안개로 인한 충돌사고는 연중 최다인 22건(월평균 13건)이며, 화재폭발사고도 빈번히 발생(5월 27건, 월평균 20건)

○ (사고예방) 철저한 경계 및 무중신호 등 충돌사고에 대한 대비에 더불어 전선 단락·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전기설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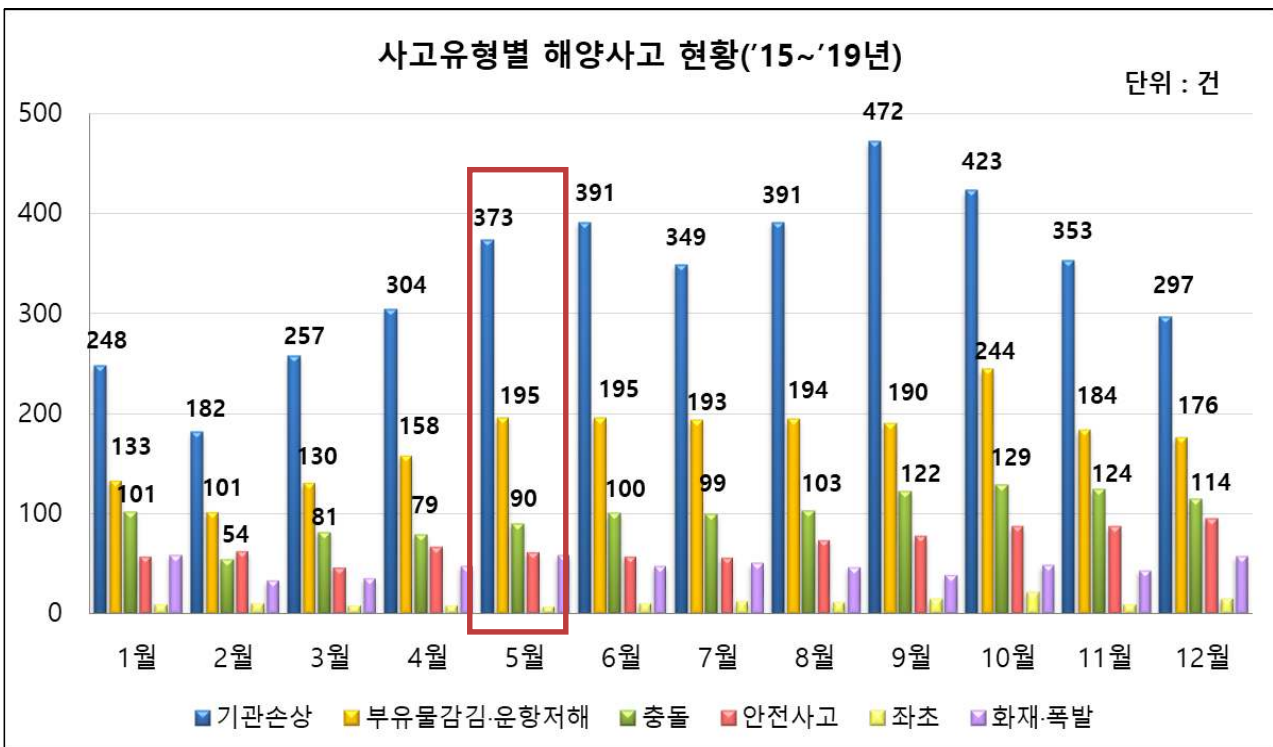


■ 최근 5년간('14~'18년) 월별 해양사고 현황

○ 선종[대분류]별 해양사고 현황



○ 사고유형별 해양사고 현황



☞ 5월 주요 해양사고 사례는 부록3. 참고

어업정보

제공: 국립수산과학원

■ 5월 어황정보

○ 지난달(5월)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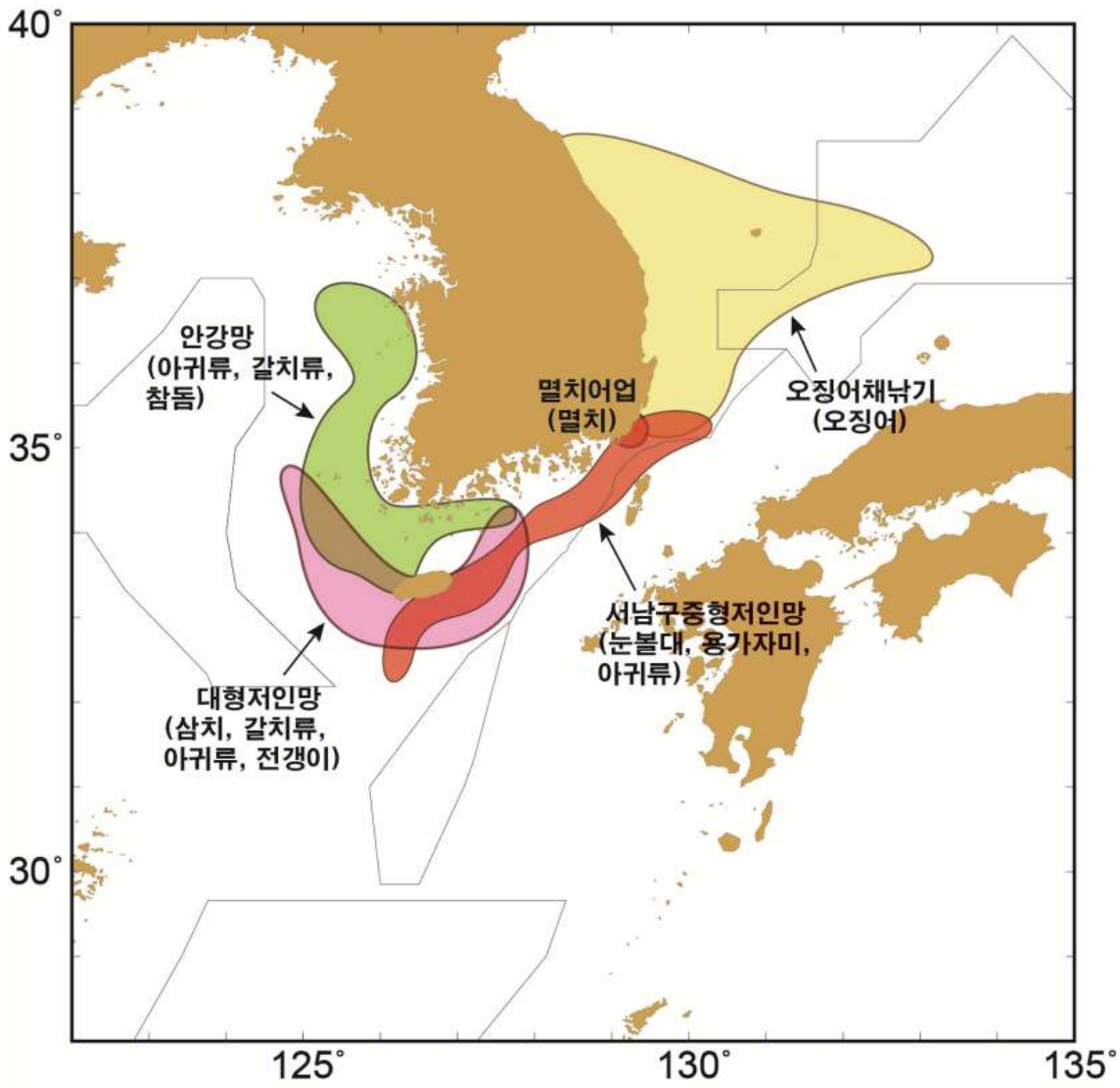
- 4월(기간: 3.22~4.18)의 주요 어종별 어황을 살펴보면, 멸치와 살오징어는 평년비
순조로웠고, 갈치와 말쥐치는 평년수준이었으며, 고등어, 망치고등어, 전갱이, 참
조기는 평년비 부진하였음

○ 5월 주요 어망별 어황

- 대형선망어업: 휴어기(3개월, 4.7~7.9)에 들어가겠음
- 권현망어업: 멸치 주산란기를 맞아 금어기(3개월, 4.1~6.30)에 들어가겠음
- 근해안강망어업: 서해 특정해역~제주도 북서부 근해에 걸쳐 어장이 확장되겠으며,
아귀류, 갈치, 참돔 위주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으로 예상됨
- 저인망어업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삼치, 갈치, 전어, 아귀류 등을 대상으로 제주 남서부~
남해 중부 근해에 걸쳐 어장이 형성되겠음
 - 대형외끌이저인망어업: 제주 남서부~남해 중부 근해에 걸쳐 삼치, 갈치, 아귀류,
전갱이 등을 대상으로 어장이 형성되겠음
 - 서남구중형저인망어업: 눈불대, 용가자미, 아귀류를 대상으로 제주 남서부 근해~
남해 동부 해역에 걸쳐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5월 한 달간의 휴어기에 들어가겠음
 -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어종별 어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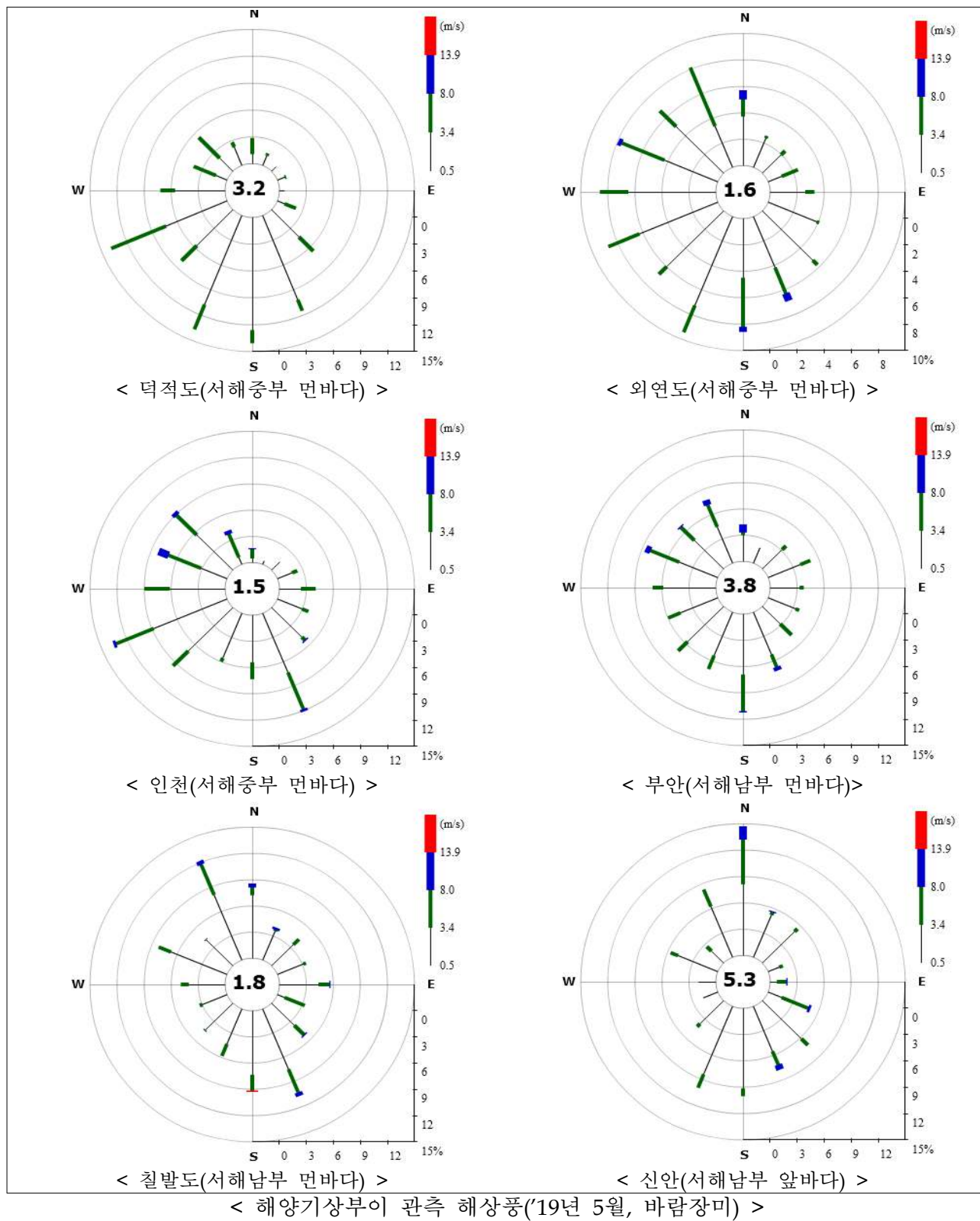
고 등 어	고등어는 제주 남부해역 및 제주도~대마도 주변해역에 걸쳐 어군 밀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주업종인 대형선망의 휴어기(3개월, 4.7~7.9)로 인해 생산량은 저조 하겠다.
살오징어	겨울철 남하회유 이후 북부 동중국해로부터 어군이 북상하여 동해 중남부해역에서 밀도가 높아지겠으나, 소형개체가 대부분이겠다. 근해채낚기어업과 연안복합어업은 금어기(4.1~4.30)를 끝내고 조업을 재개하겠으며, 정치망을 제외한 타 어업은 5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이어진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멸 치	권현망어업의 금어기(4.1~6.30)가 이어지겠고, 울산~기장 근해로 회유하는 어군(대멸)을 대상으로 자망어업이 활발하겠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갈 치	동중국해에서 북상하는 어군을 대상으로 제주 남부해역을 중심으로 조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수준 또는 평년비 부진해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전 업종에서 미성어(금지체장: 항문장 18cm) 어획비율은 매우 높게 모니터링 되고 있어 소형어 어획자제가 필요하다.
참 조 기	주 남서해역에서 일부 조업이 이루어지겠으나, 전체적으로 연중 한어기(5~7월)로 어장이 한산하겠다. 주업종인 근해유자망어업의 금어기(4.22~8.10)가 지속되겠으며, 전체적인 어황은 평년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성어(금지체장: 전장 15cm) 어획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소형어 보호를 위한 어획자제가 요구된다.
전 쟁 이	산란기를 지나면서 남해 동부해역을 중심으로 어군밀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주업종인 대형선망의 휴어기(4.7~7.9)로 전체적인 어황은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 타	망치고등어는 북부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분포하는 시기로, 제주 남동부 근해에서 일부 어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나 어황은 저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말쥐치는 제주 남동부해역에서 어군밀도가 높아지는 시기이나, 전 업종을 대상으로 말쥐치 자원회복을 위한 금어기(5~7월)에 들어가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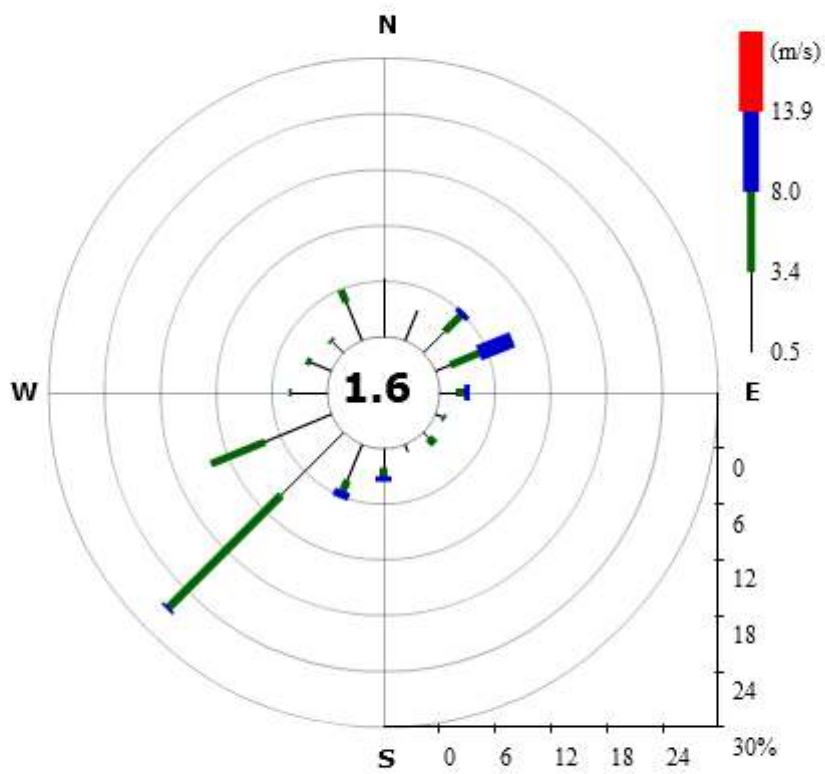
< 5월 어업별 예상 어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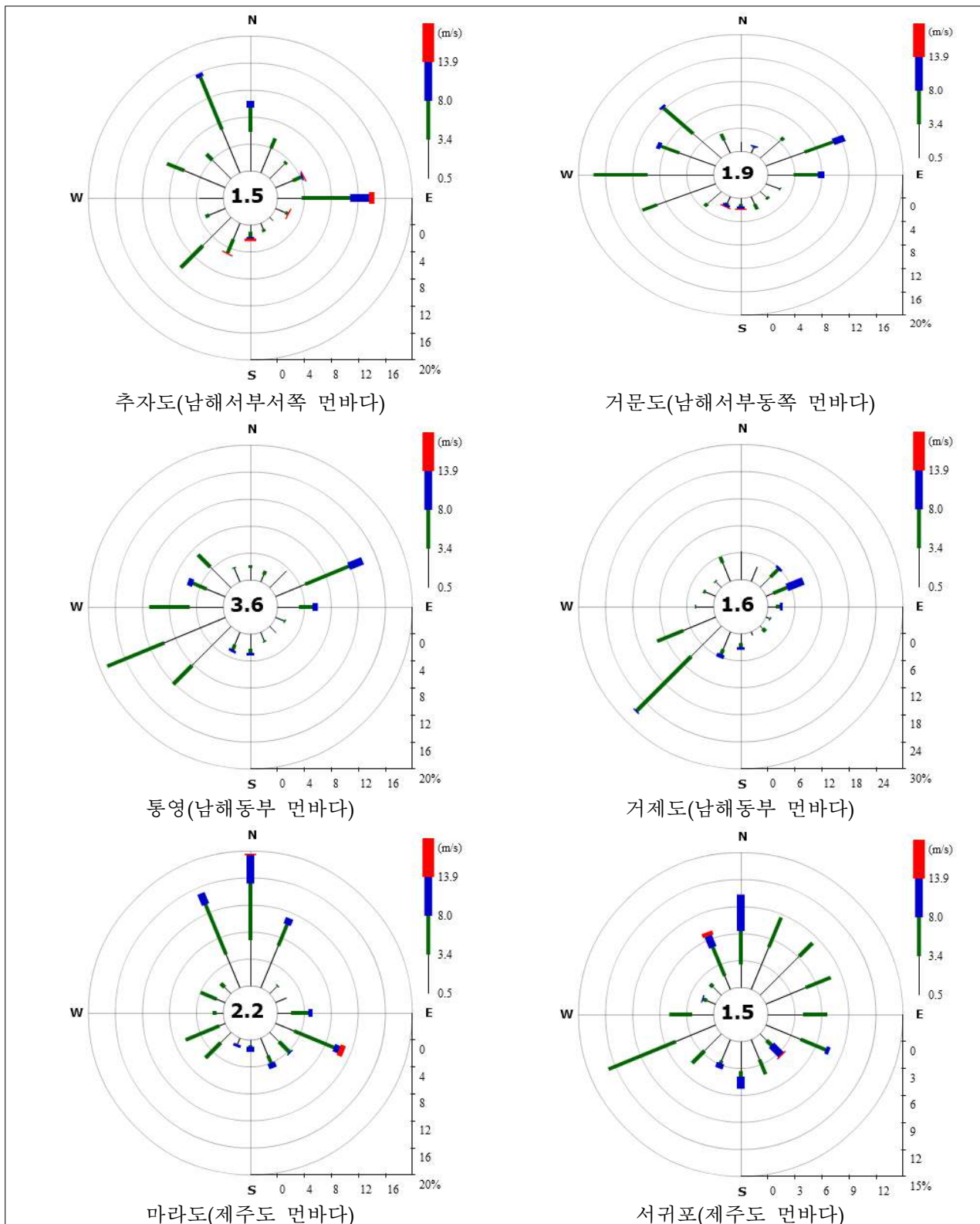
【부록 1】

5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서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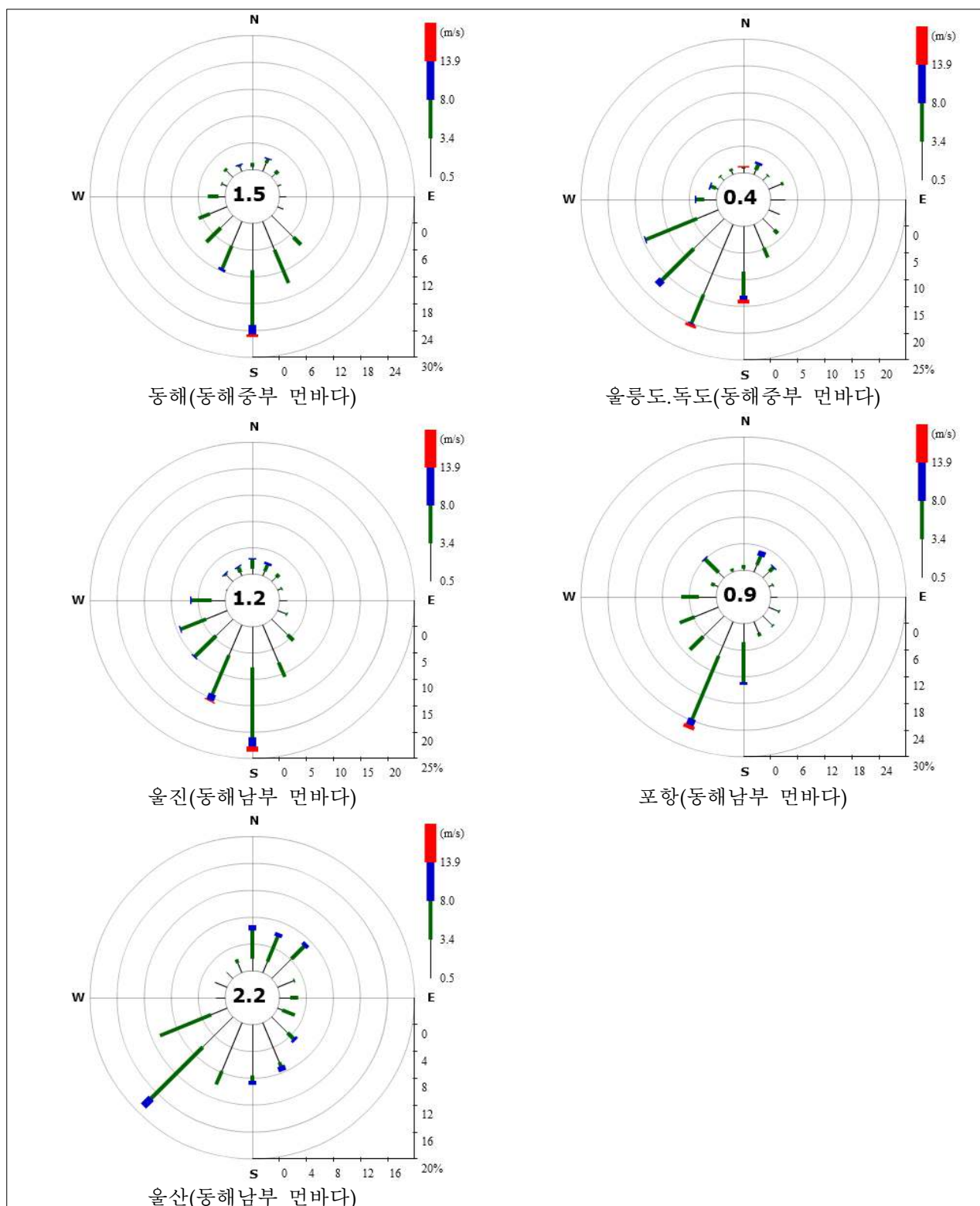
5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남해·제주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9년 5월, 바람장미) >

5월의 해양기상부이 해상풍(동해상)



< 해양기상부이 관측 해상풍('19년 5월, 바람장미) >

【부록 2】

5월의 주요 해상조난 사고 사례

제공: 해양경찰청

○ 사고 사례

일 시	선 명	피 해	사고원인
'19. 5. 19.	**호 (29톤, 어선)	선체 전소 후 침몰	원인미상의 화재 발생 * 당시 기상 : 남서풍 8~12m/s, 파고 1.5~2m, 시정 1마일
'19. 5. 27.	**호 (22톤, 청소선)	○ 선체 침몰 ○ 선원 3명 중 2명 실종	기상 불량 시 무리한 운항 * 당시 기상 : 남서풍 16~20m/s, 파고 4m, 시정 1마일



**호 화재



**호 전복

【부록 3】

5월의 주요 해양 사고 사례

제공: 해양안전심판원

1. 낚시어선 A호·낚시어선 B호 충돌사건(제한시계, 경계소홀)

사건명		낚시어선 A호·낚시어선 B호 충돌사건
사건개요	선박	A호: 낚시어선, 7.93톤, 길이 13.95미터, 강화플라스틱 재질, 디젤기관 1기 B호: 낚시어선, 7.93톤, 길이 13.64미터, 강화플라스틱 재질, 디젤기관 1기
	일시	2017. 5. 1. 15:09경
	장소	충청남도 보령시 오탁서북방등표로부터 118도 방향 약 1.82마일 해상
	피해	A호: 조타실 반파, 승객 2명 경상 B호: 선수 핸드레일 파손
	상황	낚시를 마치고 귀향하던 A호와 낚시포인트로 이동 중이던 B호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서로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
날씨	남동풍 초속 4~6m, 파고 0.5m, 시정 약 15미터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 선박이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중신호를 울리지 않는 등 제한시계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계제한 상태에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해당 선박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또는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판단하여 해당 선박과 매우 가까이 있거나 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함 ○ 모든 선박은 시계제한 상태에서 청각 및 레이더 경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규모가 작은 선박이라도 무중신호를 울릴 수 있는 음향신호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선장은 레이더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사고상황도	<p>The diagram shows two fishing vessels, A (blue) and B (red), on a collision course. Vessel A is moving towards the right, and vessel B is moving towards the left. The map shows the location of the collision in the sea near the Otdak-seobuk-bang-dongpyo buoy, with various navigational markers and depth soundings.</p>	

2. 어선 C호 화재사건(전기설비 전선단락)

사건명		어선 C호 화재 사건
사건 개요	선박	C호: 어선, 29톤, 길이 22.10미터, 강화플라스틱 재질, 디젤기관 1기
	일시	2019. 5. 19. 19:57경
	장소	경상북도 울진군 소재 죽변등대로부터 096도 방향, 약 23.4마일 해상
	피해	C호 전소 및 침몰
	상황	집어등을 켜 상태로 조업하던 중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 하였으나 화재진화에 실패하고 선박은 전소되어 침몰
날씨	남동풍 초속 8~12m, 파고 1.5~2m, 시정 약 10마일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설비 점검을 소홀히 함으로써 안정기 전선의 단락으로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변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 발생, 선박이 침몰된 것은 화재 확산으로 선체가 소손되면서 부력을 상실함이 원인 	
교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낚기 어선은 항내 계류 중 외부 전문업체에 의해 주기적으로 전기설비를 점검·정비하고, 본선 자체적으로는 선체 진동 등으로 풀리기 쉬운 안정기 및 배터리와 연결된 전선의 고정용 나사를 점검하여 적절히 죄어 주어야 함 ○ 소형 어선은 기관실 화재 예방을 위해 기관실 안에 주기관뿐만 아니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배전반, 안정기 및 배터리가 설치된 구역에도 무인기관실용 자동확산소화장치를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소형 어선의 소유자는 선장이 조타실에서 기관실에 설치된 주요 기기의 작동상태와 화재 발생 등을 감시할 수 있도록 기관실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C호 화재상황	